

英, 商標 제작기업 곧 韓國 진출 인터브랜드社와 提携, 紛爭방지등 效果기대

英國의 세계적 商標製作기업인 인터 브랜드社가 곧 우리나라에 상륙, 각종 CIP(기업이미지 통일화작업)제작의 국제화와 해외기업과의 商標權 분쟁방지등에 큰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인터 브랜드社는 (株)韓國商標資料센터(대표 朱鳳文)와 제휴하기로 합의, 관계자가 來韓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년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될 韓國商標資料센터는 기업명과 브랜드·디자인의 개발대행사업을 펴는 한편 인터 브랜드社의 각종 자료를 이용, 우리나라 輸出商品 브랜드가 외국브랜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해 발생하는 분쟁방지등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터 브랜드社는 英國에 본부를 두고 유럽과 美洲등 13개국에 22개의 지사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에 순수수표제작으로 6백만파운드의 영업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朱鳳文사장은 지난해말 현재 美國에는 70만개, 日本에는 1백만개, 유럽에는 3백만개가 넘는 商標가 있으며 매년

25만개 가까운 새로운 商標가 出願, 급증하고 있어 海外開發 商標의 사진 조사없는 固有商標輸出은 商標權분쟁의 소지가 클수밖에 없다고 지적, 이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韓國商標資料센터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特許廳에 登錄된 13만여개에 달하는 商標의 電算분류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王」字 넣은 商標 일반단어 아니면 登錄가능

商標法上 商品名이 단순히 그 상품의 품질과 形狀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 登錄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의미가 다른 뜻으로도 해석되는 용어라면 登錄이 가능하다.

大法院은 三養社가 特許廳을 상대로 낸 上告審에서 이 사진 出願商標「王면·KING MYOUN」의 「王」은 임금·군주의 뜻보다 그 물건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登錄을 받아줄 수 없다는 特許廳의 審判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때 「王」은 「면」이란 낱말을 결합한 것으로서 「왕면」의 王은 임금·군주의 뜻외에 물건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王道 王家등은 가장 큰 길 또는 가장 큰 집이 아니라 王의 길, 王의 집으로 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광역적인 해석

에서 登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왕면」이라는 낱말의 개념은 「王의 면」이라는 뜻과 「가장큰」 또는 「굵은면」이라는 뜻으로 서로 다르게 풀이될 수 있지만 그 어느쪽으로도 일반적인 낱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 따라서 일반수요자나 이용자가 「王면」이라는 표시를 보았을 때 이것이 「큰 국수」 또는 「굵은 국수」라는 국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우므로 商品名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王이라는 낱말이 다른 낱말과 결합하여 사용되어 그 商品의 형상을 상징하는 王개미(가장 큰 개미) 王소금(가장 굵은 소금)과 같은 경우는 商標法에 의해 登錄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